

경희의 이름



주강현 동문

‘우리문화의 수수께끼’ 저자 <영교과 83년 졸업>

삶의 뿌리를 찾는 진보적 민속학자

우리 문화는 잊혀져 가는 많은 수
수제끼를 지니고 있다. 이 수수께
끼를 하나씩 풀어 나가면 우리는
우리문화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수수께끼 풀이에 발벗고 나
선 사람이 있다. 이미 ‘우리 문화
의 수수께끼’ 저자로 잘 알려진
주강현 동문이다.

“식혜는 우리 식생활문화가 거둔 승리의자
회방이다”라며 강동 속에 담긴 식혜에서 민족
음식의 변법자강책을 논하고, 뚝배기의 내력을
말하며 “뚝배기는 우리의 훌륭한 자원이다”라는 주
장을 당당하게 외치는 이가 있다. 새로운 연구
와 파격적인 주장으로 사람들의 지적 욕구에 군
침이 돌게 하는 사람. 바로 걸작한 입심과 맛깔
스런 글로 우리 문화의 맛과 멋을 전하는 민속
학자 주강현씨다.

그는 일단 ‘우리문화의 수수께끼’ 저자로서
유명하다. 한겨레신문에 전면칼럼으로 연재하
였던 ‘우리문화의 수수께끼’는 96년 발간된 이
래 순수인문과학 대중서적으론 경이적인 25만
부의 판매고를 기록하여 스테디셀러로 자리잡
았으며, 시사저널 ‘95,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마음로 간 기록’, ‘우리문화의 수수께끼 2권’,
‘주강현의 우리문화기행’ 등도 좋은 반응을 얻
었다.

스스로도 스타임을 자처한다. 물론 강한 자신
감은 결코 근거없이 나오는 말이 아니다. 현재
우리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한국민속학’은
매 학기마다 수강신청이 가장 먼저 마감될 만
큼 인기가 좋다. ‘전국구’란 별명이 붙을 만큼
지방강의를 하기도 많다. 이번 학기만도 20회가
넘는 지방강의를 하였고 최근 비행기를 타고 지
방강의를 하러가는 횟수만도 일년에 50회가
넘는다. 학술, 출판, 신문, 방송에서의 다양한
활동도 스타임을 실감케 한다.

독특한 강의방식도 그의 자랑거리 중 하나다.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고, 좀 더 재미있
는 강의가 되도록 연구를 거듭한 결과 학생들이

직접 자신들의 점수를 매기는 방식을 도입했
다. 학생들을 10개조로 나누고 학생들마다 각
열개조에 대한 점수를 직접 매기게 된다. 때문
에 학생들간 선의의 경쟁이 벌어져 수업능률이
높아졌다고 한다. 조를 잘 만나면 공부를 안해
도 된다는 성급한 판단은 금물. 학생들마다의
출석점수나 연구 참여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마련했기 때문에 결국 열심히 노력
하는 사람에게 더 높은 점수가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써낸 책을 보면 그가 단순히 입심좋은
반짝스타가 아닌것은 분명해 보인다. 국내외를
마돈하고 우리문화의 자취를 찾기위해선 어디
든지 직접 발로 뛰어다닌다. 요즘에도 한달에
두번 짬은 지방답사길에 오른다. 이런 현장활동
으로 현재 그가 쓴 책은 모두 13권에 이른다.
공저 7권을 포함한다면 방대한 양이다. 평생동
안 50권의 단독저서를 집필하는 것이 그의 목
표라고 한다.

베스트 셀러 작가가 된 민속학자 주강현, 그

희곡작가에서

민속학자로 변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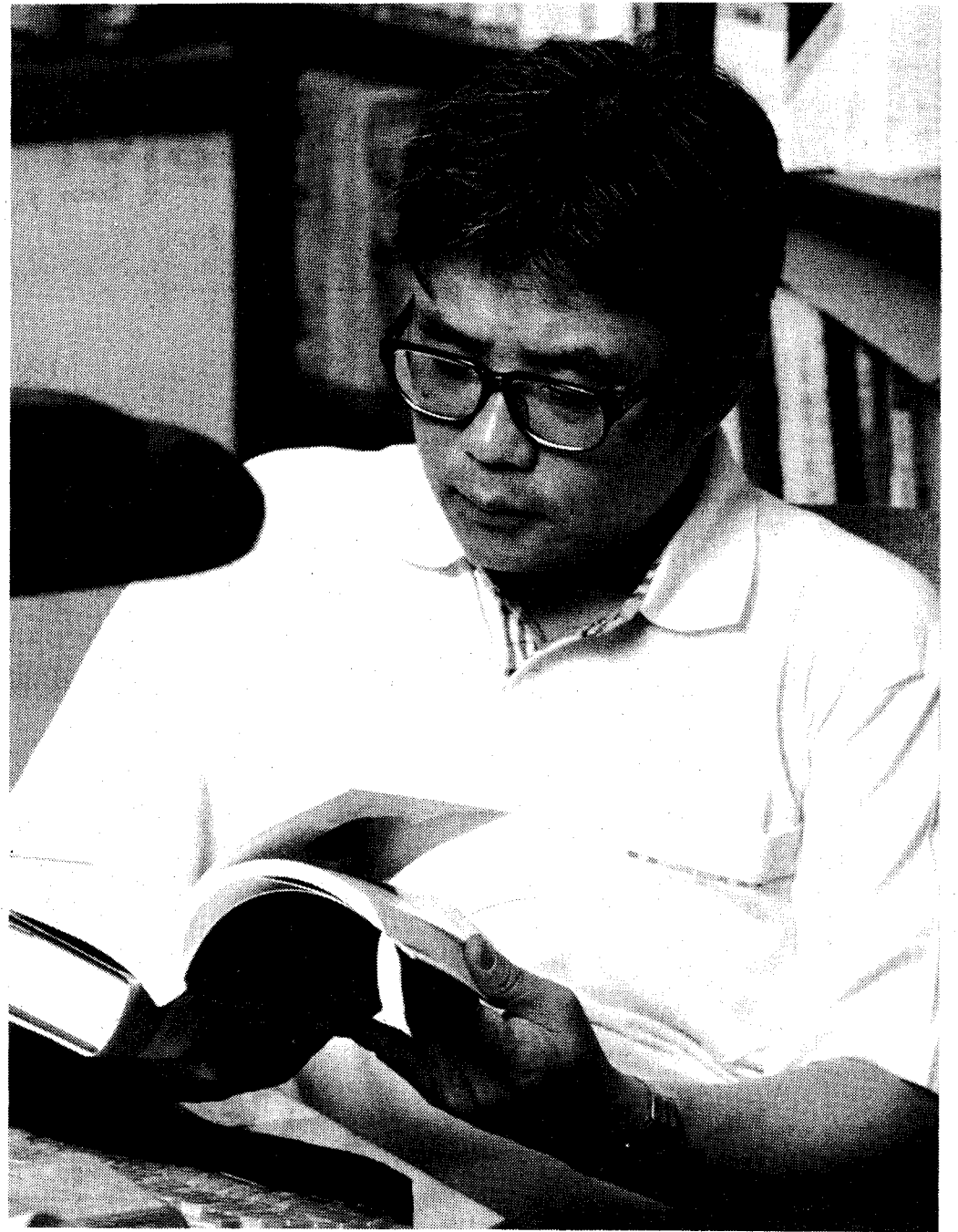
창조와 파괴로

끊임없는 변화추구

러나 그의 학창시절 꿈은 민속학자가 아니었다
고 한다. 고등학교시절부터 쇼펜하우어와 칸트
를 토론할 만큼 엄청난 독서광이었던 그는 영교
과에 진학할 당시만 하더라도 선생님이 되어 희
곡 작가활동을 하려는 소박한 꿈의 문학소년이
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대학시절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냈다. 학과공부보다는 주로 다양
한 장르의 책을 읽는 것이 훨씬 재미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잡기에 서른다. 74학번인
그가 학교를 다닐 당시에는 당구대학이라고 불
릴만큼 학교주변에 당구장이 많았지만 그는 당
구를 배우지 못했다.

그러다가 80년에는 교내 학원자주화운동으
로 인하여 학교를 잠시 떠나게 되었다. 그는 이
몇년인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었다고
밝힌다. 82년 복직될 때까지 현재 민예총의 전
신인 민족 문화 운동 협의회에서 활동하면서 사
회 문화운동을 했었기 때문이다. 극작가의 꿈을
이루기도 했다. 81년에는 노비 만적의 이야기
를 다룬 ‘민초’를, 82년에는 문예회관에서 탄
광촌의 이야기를 다룬 ‘아리랑 광부’를 무대에



▲특별한 일정이 없는 날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독서를 보내는 주강현씨

올렸다. 이때 임진택씨와 배우 김명곤씨등과 함
께 활동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마당극이나 탈춤 등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런
게 민속학으로 이어졌다. 우리뿌리를 찾으려다
보니 전통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
었고 옛 문헌을 많이 보다보니 민속학 연구에
점점 빠지게 되었다. 어느순간 자신이 희곡작가
가 아닌 민속학자라고 불리워지기 시작한 것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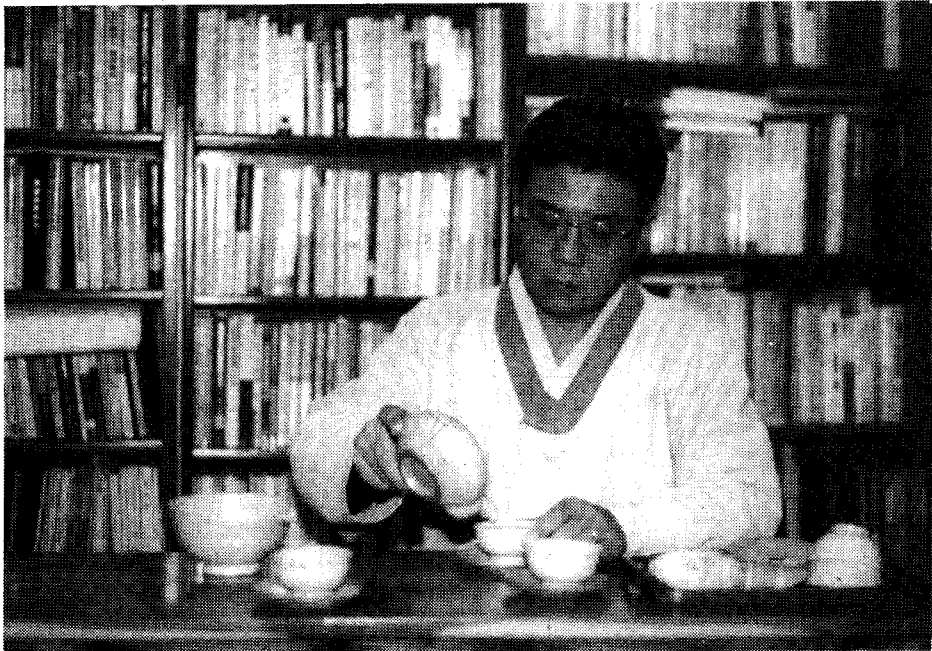
85년 우리학교 국문학 석사를 받은 그는 87
년 부터 세계적인 민속학자인 스승 김태곤 교수
가 중앙박물관 관장으로 재직할 당시 박물관
민속연구원으로 재직하기 시작, 본격적인 민속
학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그리고 석사논문을
바탕으로 한 첫 저서 ‘민족과 굿’을 펴냈다. 이
후 88년 ‘노동과 굿’, 89년 ‘북한의 민속학’,
91년 ‘북한 민속학사’, ‘굿의 사회사’ 등 한해
하나꼴로 책을 내왔다. 95년에는 우리학교 국

문학과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주강현씨는 민속학이 결코 구시대의 유물이
나 문화재만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고 말한
다. 우리의 기층문화를 이해하는데 매개구 역할
을 담당할 수 있는 민속학은 바로 신도불이 바
람의 핵심이며, 살아온 뿌리에 대한 본질적 이
해를 돕는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활자문화에 국
한되지 않고 음악, 영상 등 다양한 매체의 활용
으로 오늘날과 같은 매스미디어시대에 어울리
는 학문이라며 독립학과의 창출 필요성을 제기
했다.

“세상에 창조형 인간과 관리형 인간이 있습
니다. 끊임없는 창조와 파괴로 계속적인 변화를
추구해야만 좀 더 발전된 자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저 자신도 십년 후의 제
모습이 또 어떻게 변화할 지 잘 상상이 안갑니
다.”라며 후배들이 창조적인 인간이 되기를 바
란다고 덧붙였다. <최웅섭 기자>

주요 경력 및 저서

- 95년 경희대에서 ‘두레’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 수여
- 경희대학교 ‘한국민속학’, ‘민속미술사’ 강사
- 민족문화연구소장
- 한국역사민속학회, 한국민속학회 이사
- 한국해양문화재단 창설위원
- 주요저서: ‘북한 민속학사’, ‘굿의 사회사’, ‘조선말 마을지킴이’, ‘북한의 민족생활풍습-북한 생활풍습 50년사’, ‘마음로 간 기록’, ‘우리문화의 수수께끼’, ‘한국의 두레’, ‘주강현의 우리문화기행’ 등



▲연구실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직접 차를 대접하기도 한다

전기가
아름다운 생활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세계일류 전력회사와 만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세계가 인정하는 일류 전력회사입니다.

- ★「에디슨 대상」 수상!
세계적 권위의 에디슨 전기협회(EEI)가
올 해의 가장 우수한 전력회사로 한국전력을 선정하였습니다.
- ★ 국민 1인당 1kW 발전설비 달성!
원자력 발전설비 1,000만kW로 발전설비 4,000만kW를
돌파하였습니다.
- ★ 북한 원자력발전소 착공!
세계가 인정한 원전 운영능력과 기술력으로 북한 원전건설의
역사적인 첫 삽을 떴습니다.